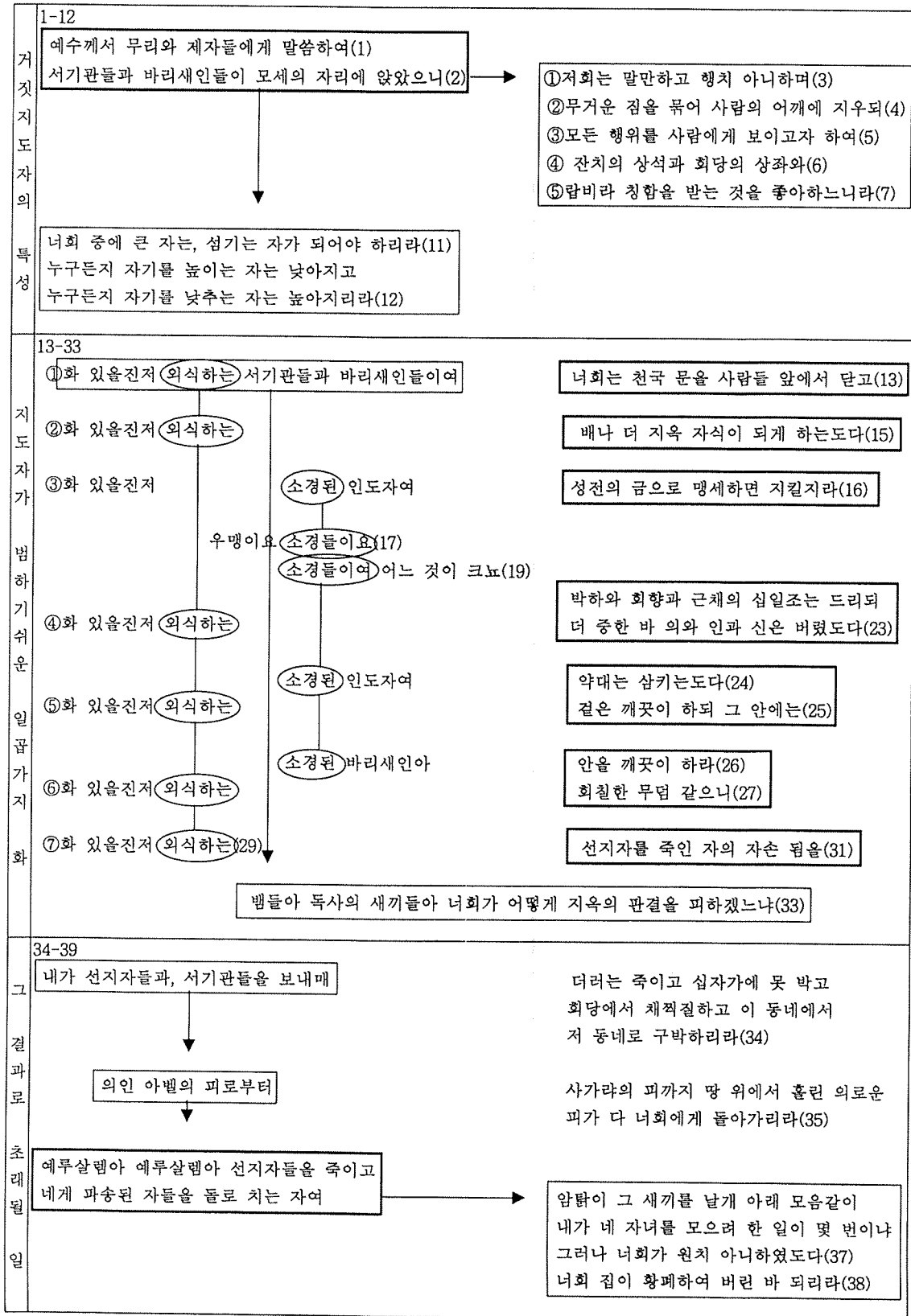


마태복음 23장 개관도표  
주제 : 잘못 된 지도자의 특성과 그 결과



## 마태복음 23장, 잘못 된 지도자들의 특성과 그 결과

요절 :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 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23장의 중심점은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고, 일곱 번이나 저주하신 데 있습니다. “누가, 왜” 이처럼 주님을 진노하시게 했던 말인가? 이는 지도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하며, 지도자가 잘못되었을 때에 그 해독이 얼마나 가공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를 적나라하게 폭로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만 국한 된 것이 아니고 모든 시대에 세움 받은 모든 지도자들에게 적실성(適實性)이 있는 대단히 중요한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21:10)하셔서,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과 논쟁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를 “예루살렘의 전투”라 부른 바 있습니다. 그 전투는 “그 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22:46) 하고 끝이 났습니다. 그러자 23장의 말씀은, “무리와 제자들”(1상)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에 자리에 앉았으니”(1하) 하고, 이들의 잘못을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리들”에게는 경계가 되고, “제자들”에게는 경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 첫째 단원(1-12) 잘못된 지도자의 다섯 가지 특성
- 둘째 단원(13-33) 지도자가 범하기 쉬운 일곱 가지 화
- 셋째 단원(34-39) 지도자의 잘못으로 초래될 결과

### 첫째 단원(1-12) 잘못된 지도자의 다섯 가지 특성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1).

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2) 하십니다. 이는 본 장을 바르게 해석하는 접착점이 됩니다. 이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는 뜻입니다만, 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겠습니까? 주님은 저들을 “뱀들이 독사의 새끼들이”(33) 하십니다. 성경은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바며”(호 8:4)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는 잘못된 지도자들이 모세의 자리를 차지(점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갈 1:1),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②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3상)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어서 거짓 지도자의 다섯 가지 특성을 말씀하십니다.

㉠ “저희는 말만하고 행치 아니하며”(3하),

㉡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4),

㉞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여 하나니”(5상),

㉟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6),

㊱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7) 하십니다. 이 특성이 어찌 저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이러한 특성은 현대교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한다면 저만의 편견일까요? 우리는 겸비한 마음으로 이런 특성이 나 자신에게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㊲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8상),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9상),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10상) 하십니다. 이는 “목사님, 장로님, 주교교사”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부모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특권층(特權層)이나, 계급의식(階級意識)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경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황(敎皇), 신부(神父)라는 표현은 옳은 호칭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몸예다 비하고 있는데 머리는 오직 주님 한 분이시고, 우리는 모두가 지체요, 같은 형제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8하),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9하),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10하) 하시는 것입니다.

㊳ 주님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11), 이 원리를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20:26-27절에서도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2절에서도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십니다. 11-12절은 본 단원의 결론입니다. 요는 “섬기는 마음, 자기를 낮추는 자세”, 이것이 참 목회자의 특성이고, “크고자 하는 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바리새주의적인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모르는 지도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설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만하고 행치 아니 하는” 우리는 누구란 말인가?

둘째 단원(13-33) 지도자가 범하기 쉬운 일곱 가지 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13).

① 드디어 주님의 거룩하신 분노는 “화 있을진저” 하고 일곱 번이나 발하여지고 있습니다. “폭발했다” 함이 옳을 것입니다. 이는 5장에서 말씀하신 “복이 있나니” 하신 8복의 사람과는 정확히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8복에서도 첫 언급이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5:3) 하셨는데, 일곱 가지 화에서도 “천국 문을 닫는 자”라고, “천국”을 첫째로 거론하십니다.

② 그렇다면 주님의 분노가 누구의 무엇에 대한 분노인가? ㉠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 “천국 문을 닫아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여,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데 대한 분노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저들이 이렇게 된 주원인은 도표에 나타나 있는 대로, “외식과, 소경 됨”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외식”이라는 말이 7번(13, 15, 23, 25, 27, 28, 29), “소경”이라는 말이 5번(16, 17, 19, 24, 26)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외식”(外飾)은 윤리성과 결부되고, “소경”은 성경을 곡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친 신학과 결부가 됩니다. 15장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1)에게 “외식하는 자들이”(7),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14) 하고 “외식과, 소경”됨을 책망하셨습니다.

③ 그렇다면 어째서 분노의 표적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인가 하는 점입니다. ㉠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이요,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눅 12:1) 하심 같이 외식하는 자의 대명사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3장의 말씀은 모든 지도자에게 해당되는 경계임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외식과, 소경”됨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지도자들이 빠지기 쉬운 치명적인 함정인 것입니다. 지도자의 소경 됨은 발람을 경우를 들어 설명함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앞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민 24:15-16) 합니다. 자신이 전에는 눈을 감았던 소경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셔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내가 그를 보아도 이 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17),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브올산에 올라갔던 거짓 선지자도 눈을 뜨게 해주시니까 이스라엘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보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 지도자의 함정 외식과 소경

① 그러므로 첫 번째 화가,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았다”(13상)고 책망하십니다. 천국 문을 어떻게 닫았는가? 누가복음에서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눅 11:52) 하십니다. 설교자는 “지식의 열쇠”를 맡은 자입니다. 이 열쇠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전해주면 천국 문을 열어주는 것이요, 만일 곡해하면 사람들 앞에 닫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문”을 열어주는 설교란 “복음”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설교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의도적으로 “천국 문”을 닫으려는 설교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설교의 중심을 복음에 두지 않는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도들 앞에서 천국 문을 닫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막혔던 휘장은 5병2어의 광야나, 나사로의 무덤에서 찢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열려졌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셔서 천국 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② 두 번째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15) 하고 책망하십니다. 혼동하지 마십시오. 저들에게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는” 열심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가? 이렇게 하고 있음을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 자각(自覺)하고 있었던 말인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말씀은 오늘의 설교와 목회를 점검하게 하는 시금석이 되는 말씀입니다.

③ 세 번째로, “화 있을진저 소경 된 인도자여”(16상) 하십니다. 24절에서도 “소경 된 인도자여” 하십니다. 23장 말씀은 “인도자”에게 주어진 경고임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16-22절은 종교지도자들이 만든 “맹세”에 대한 규칙인데, “성전이나, 제단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고, “성전의 금(16)이나, 예물”(18)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치판단이 전도(顛倒)하게 된 것은 저들이 “우맹이요 소경들”(17)이 되었기 때

문입니다. 그들은 “금으로 맹세, 예물로 맹세”라는 표현이 말해주듯이 황금과 물질에 눈이 어두워졌던 것입니다.

④ 네 번째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드리되”(23상) 합니다. “박하, 회향, 근채”란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십일조까지 철저하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를 범하면 큰 죄를 범한 양 정죄를 하면서,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23하) 하십니다. “의”(義)는 의로운 삶, 곧 이웃과의 관계에서, “신”(信)은 믿음,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인”(仁)은 인자, 곧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22:40)인데 이는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소경 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 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24) 하고 책망하십니다. 첫째와 둘째 화가 “천국”과 결부가 되어 있고, 셋째와, 넷째 화는 물질과 결부되어 있음은 주목해야할 점입니다.

⑤ 다섯 번째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25) 하십니다.

⑥ 이는 여섯 번째로,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27) 한 말씀과 결부되는 말씀입니다. 25-28절 안에는 “결과, 안”이 네 번(25, 26, 27, 28)이나 대조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28) 하신 “외식”의 전형(典型)입니다. 앞서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외식과, 소경”, 이 두 가지 요소는 목회자의 사활을 좌우하는 경계인 것입니다.

⑦ 마지막 일곱 번째 화로,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 하였으리라”(29-30) 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으로”(31) 하십니다. 주님은 어찌하여 마지막으로 “선지자를 죽인 자손” 됨을 거론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으면서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을 것을 하고 말하는 바로 그 자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미 “악한 농부의 비유”(21:37-39)에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32), 즉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악은 절정에 이르게 되고, 그 악의 양이 차게 된다는 뜻입니다.

⑧ 그렇다면 결론은, “뱀들이 독사의 자식들이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33)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들을 “뱀들이 독사의 자식들이” 하시는데, 이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창 3:15) 하신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상황임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싸움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독사의 자식들과, 여자의 후손들 간의 싸움은 주님이 재림하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다음 단원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셋째 단원(34-39) 지도자의 잘못으로 초래될 결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34).

① 본 단원은 “그러므로” 하고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급기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독사의 자식들”은, 주님께서 보내시는 복음전도자들을 핍박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파송설교에서 이렇게 할 것(10:16-18)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을 계시록에서는, “여자(교회)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하는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계 12:15-17) 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예언은 사도행전에서 문자적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②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35)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들은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화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박으면서도,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27:25) 하고 말했으니,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피까지 저들에게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③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37상), 지금까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되는 원인, 즉 지도자들의 책임을 말씀하시고는, 이제는 그 결과로 멸망당할 예루살렘에 대해서 탄식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9:41절에서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된 것은 이 때가 처음이 아닙니다. 미가 선지자는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미 3:10) 하고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성은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구나!

④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 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37하) 하십니다. 여기서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를 놓고 주님이 예루살렘에 몇 번 올라 가셨는가를 논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구속사역이란 창세기로부터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하나님의 품에 모으려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당시도,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신 1:31) 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도,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사 49:15)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37하) 하십니다.

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38) 하심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질타하시는 본 장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39) 하심으로 끝마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때 가서는 보게 된다는 말씀인가? 스가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슥 12:10). 이처럼 이스라엘이 속히 회개하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⑥ “잘못된 지도자의 특성과 그 결과”라는 주제로 말씀드린 본 장을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점은 지도자의 “외식과 소경 됨”이 초래하게 될 가공스런 결과입니다. 목회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잘못은 지식의 열쇠를 맡았음에

도 성경을 곡해하여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가 둘이 다 구렁이에 빠지게 되는”(15:14) 과오입니다. 1차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도 여기에 원인이 있었고, 언약의 백성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엄청난 죄악을 범하게 된 원인도 여기 있었고, 그 결과로 예루살렘이 2차로 멸망당하게 된 원인도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⑦ 이를 인정하는 지도자라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재림의 날에도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경각심을 가져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일곱 번이나 “화 있을진저” 하고 진노를 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으로부터는 존경을 받은 지도자들입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성별 된 삶을 사노라 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계명들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외식입니다. 소경 됨입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외식하지 않습니까? 현대교회 지도자들은 그들보다 소경 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